

음주운전 '게 섰거라'

전북경찰, 25일 시행 '윤창호법' 맞춰 7월까지 특별 단속

전북경찰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윤창호법에 맞춰 도내 음주운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처벌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7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 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처벌 기준이 바뀐다.

또한, 음주단속에서 면허 정지 수준으로 측정되더라도 음주운전 횡수가 2회 이상이면 면허 취소를 받게 되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6~7월 도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평균 613

건으로 월평균 587건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전주권이 음주사고가 많아 경찰관과 동태 인원을 추가 증원해 음주운전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이석현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계기로 올바른 운전습관이 자리 잡도록 음주운전 행위를 적극 단속 할 것"이라며 "도민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석훈 기자



전북대학교병원에는 지난 21일 병원 발전을 위해 10억원을 기부한 고 김창규 회장의 값진 기부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암센터 56병동에서 '김창규 병동' 현판식을 거행했다.

'김창규 회장의 값진 기부 의미 되시겠다'

전북대병원, 암센터 56병동 명명 '김창규 병동' 현판식 거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병원 발전을 위해 10억원을 기부한 고 김창규 회장의 값진 기부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암센터 56병동에서 '김창규 병동' 현판식을 거행했다.

현판식에는 조남천 병원장과 이승욱 기획조정실장 등 병원관계자와 고 김창규 회장의 부인 전순안 여사와 3남 4녀의 자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고 김창규 회장은 70년을 평생 제지 산업 외길을 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지 기술인으로 군산에 있는

대원제지, 아이유제지, (주)대원과 아산에 있는 신창제지, 예산의 프린스페이퍼 메이플제지 등을 설립 운영했다.

다.

일제치하 가난한 집 7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난 고인은 식민지 처하를 겪으면서 "국가와 사회의 융성만이 개인의 발전이 된다"고 믿어 자신의 이익보다는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우선시해 성실납세자상과 명예시민상 등을 수행했다.

전북대병원에서 오랜 지병을 치료 받아온 고인은 성심껏 치료해 준 병

원에 대한 고마움과 전북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 거점병원인 전북대병원의 발전이 곧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라는 소신을 담아 2년 전 전북대병원에 10억원을 기부했다.

전북대병원에서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기부금을 암센터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현재 환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병원 측은 기부자의 소중한 뜻을 기리고 값진 기부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새로운 환경을 갖춘 암센터 56병동을 '김창규 병동'으로 명명하고 유가족을 초청해 현판식을 거행했다.

/김영태 기자

'왜 쪼려봐?' 행인 흥기 위험 40대 택시기사 검거

쪼려본다는 이유로 흥기를 꺼내 행인을 위협한 4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5분경 군산 시내 모 도로에서 B모(20)씨를 흥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쪼려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택시에서 흥기를 꺼내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과일을 꺾아 먹으려고 차랑에 가지고 다녔다. 쪼려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석훈 기자

'변호인 참여권 강화' 소통의 장

전북경찰청, 수사관-변호사 인권 보호 방안 논의

인권보호에 앞장섰다는 호평을 받는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 관련, 변호인과 수사관이 모여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수사관과 변호사가 사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사건관계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변호사 참여 실질화 정책이란, 변호사의 형식적인 조사과정 참여가 아닌 조사 전 일정협의 등 조사참여·준비 기회, 조사내용 메모 보장, 피의자 조언·상담, 의견진술 요청권, 휴식요청

권 보장 등 피의자 권리보장을 위한 변호사 경찰수사 참여권을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체포·구금된 피의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 변호인 전용 접견실을 설치한다.

전주덕진서 광역유치장과 정읍서 유치장은 접견실을 설치했으며, 익산서 유치장은 올해 수사부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전용 접견실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군산서와 남원서 유치장까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사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훈 기자

'돈때문에' 부부싸움 끝 아내 살해 남편 1심서 징역 10년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2시 35분경 전북 군산 시내 한 아파트에서 아내 B모(45)씨를 흥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돈도 못 벌이다 주면서 무슨 말이 많으냐"는 핀잔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지만, 출동경찰관이 도착하자 흥기로 위협하는 등 강하게 저항하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제압돼 체포됐다.

재판부는 "아내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112에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석훈 기자

ATM기서 지갑 훔친 30대 검거

현금인출기 위에 있던 지갑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3분경 익산 시내 모 은행 현금인출기(ATM) 위에 있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은행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김석훈 기자



전주지검 남원지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최근 주천면의 파랑새가족(범죄피해자가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준공 행사를 가졌다.

'파랑새 가족에 보금자리 선물'

전주지검 남원지청-범죄피해자센터, 주천서 주택 준공식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고희곤)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광성주)는 최근 주천면의 파랑새가족(범죄피해자가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준공 행사를 가졌다.

파랑새 가족이 된 박 씨는 불의의 강력범죄피해를 당한 장애인가정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며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남원지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약 15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택전체를 정비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새롭게 단장해 파랑새 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범죄피해 트라우마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이 4번째이다.

박 모씨는 "자기 집처럼 온 정성을 다해 말끔히 단장하고 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한편 고희곤 남원지청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들의 희생적인 봉사가 훌륭한 보금자리 주택을 탄생시켰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광성주 이사장은 범죄피해자들의 범죄피해의 상처가 빨리 치유되어 편안한 일상으로 되돌아가기를 희망하고, 파랑새 보금자리 주택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이 4번째이다.

박 모씨는 "자기 집처럼 온 정성을 다해 말끔히 단장하고 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한편 고희곤 남원지청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들의 희생적인 봉사가 훌륭한 보금자리 주택을 탄생시켰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광성주 이사장은 범죄피해자들의 범죄피해의 상처가 빨리 치유되어 편안한 일상으로 되돌아가기를 희망하고, 파랑새 보금자리 주택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 청년심포 프로젝트 '출발'

시, 참여자 70명과 오리엔테이션 가져... 3개월동안 활동

심리적 소진·자존감 강화 위한 심리검사·상담 제공

전주시에 대표 청년지원정책인 청년심포 프로젝트가 미취업 청년들의 심적 치유와 자존감 회복을 돕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1일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재도약을 응원하는 '청년심포 프로젝트'의 제5기 참여자 70명과 함께 3개월 동안의 활동 시작을 알리는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 총 200명의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심포 프로젝트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노동시장 침체로 한겨울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자존감을 높이고 심리치유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내는 전주 대표 청년지원정책으로, 지난 2017년 처음 시작돼 현재 제4기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시는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 5기 프로젝트의 최종 선발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과 일정 안내 △첫 상담 스케줄 확정 △사전 심리검사 등을 진행했다.

이번 5기 프로젝트에는 마음상담교

센터(소장 서민영)가 상담기관으로 선정돼 향후 2달 동안 청년들과 마음을 열고 진로·직업, 대인관계, 자아 존중감 증진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시는 참여한 청년들에게 활동기간인 3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활동수당도 지급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올해부터 청년심포 프로젝트의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200명으로 확대하고 신청가능 연령도 만18~39세로 늘렸다. 또, 소득기준도 기존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150%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단,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시행중인 청년취업활동지원금과의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2년 경과사항이 추가됐다.

시는 제5기 청년심포 프로젝트에 이어 오는 8월 초부터 제6기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제6기를 끝으로 올해 청년심포 프로젝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경북지역서 힐링캠프 추진

자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주시 자활센터 종사자들과 함께하는 힐링캠프가 운영됐다.

전주시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전주지역 자활센터와 덕진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 일원에서 힐링캠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힐링캠프는 자활사업 실무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 건강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힐링캠프 참석자들은 포항 지역의 우수 자활사업장을 방문해 자활기업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뿐만 아니라 타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전주 시 실정에 맞는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 발굴과 변화하는 직장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송효철 기자

완산구, 공유토지분할

관한 특례법 시행

주민들의 공유토지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 종료되게 됨으로써 해당 주민들의 조속한 신청이 요구된다.

완산구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2인 이상의 명의로 지어져 있는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단한 절차에 의해 각종 법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토지분할 및 단독 등기 할 수 있는 특례법이다.

2012년 5월 22일부터 시행된 특례법에 따라 현재까지 123건이 신청되었으며 228필지의 분할 및 등기가 완료되어 토지소유자의 단독 재산관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공유토지분할 신청대상은 공유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담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 야 하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새로운 도약'

루비문화예술인협회 창립

사단법인 루비문화예술인협회가 창립식을 가졌다.

루비문화예술인협회는 지난 21일 협회사무소 2층 주사무소에서 김영기 창원이승산업대표, 노진열 한진 기획 대표, 한상기희 대표 등 협회 임직원들과 각계각층의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이사회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창립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루비문화예술인협회는 전북지역에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와 문화예술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활동 및 시민들의 참여 속에 지역문화의 창달, 나아가 지역문화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돼 지난 4월 30일 전라북도로부터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한상승 루비문화예술인협회 회장은 이날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을 위해 단원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온 결과 오늘과 같이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루비문화예술인협회 사단법인 창립식을 갖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사단의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효철 기자

도내 여성새일센터 상담사 직무능력 향상

전북여성새일센터, 교육 실시

전북광역·전북여성새일하기센터(이윤에 센터장)에서는 지난 21일 전북지역 9개 여성새일하기센터 취업·직업상담사 6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취업지원 사업 공모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실무력 있는 기획서 작성에 관한 핵심전략, 원페이지 보고서의 기획 구성, 정성·정량적 데이터 수집방법 등 실질적인 사업계획서 작성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실업자는 114만 5천명으로 2000년 이후 19년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취업상담사 역량을 강화, 여성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매년 실시하는 전국 새일센터 평가 대비, 성과측정 방법과 이해를 통하여 전국 150여개 새일센터의 고령자 확보를 위한 디딤돌이 되었다는 평을 받았다.

이윤에 센터장은 실업지수가 올해 또 다시 기록을 갱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교육이 취업지원 공모사업 확보 제고로 이어져 구직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지원팀(063-254-3683)으로 문의하면 된다./장은성 기자